“광주에 外高 설립 불허” 시교육청·동구청 반발

“전국에 29개…광주 학생들 교육권리 침해”

교육인적자원부가 6일 시·도교육청의 외국어고 설립을 오는 10월까지 당분간 인가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자, 그동안 사립 외고 설립에 주력해온 광주시교육청, 광주시 동구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시민들도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되고 국제회의 도시로까지 지정돼 외국어 인재 양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외고 설립이 지연되거나 자칫 무산돼 외국어 교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갖고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설립 사전 협의 절차를 10월 말까지 전면 유보, 당분간 인가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설립권을 시·도교육감에 주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은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 3개 특목고 지정·고시(설립)는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10월 말까지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개선 검토 방향은 외고 등의 ▲영구적 신설 금지 ▲조건부 설립 인가 재개 ▲지정 해지 여부 등이 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고 설립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지역 중견건설사인 호반건설 계열 학교법인인 태성학원을 사립 외고 설립 후보자로 공모해 교육부와의 최종 협의만을 남겨둔 광주시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외고 설립은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자, 시교육청이 광주시와 체결한 인재양성 및 교육발전을 위한 11가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29개 외고를 모두 없앤다면 모를까 현재처럼 외고를 유지하려 한다면 시·도에 최소한 한 개 정도를 허용해야 한다”며 “광주처럼 외고가 없는 지역의 경우 지방교육을 육성하기 어렵고 학생들 역시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영개발을 통해 동구 선교동 3만6천363㎡(1만1천여 평)의 부지에 24학급·720명 규모의 외고를 유치해 교육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공언해온 동구청도 “지역 불균형의 또 다른 요인이 될까 우려된다”며 “지역 사정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특목고 불허 방침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국의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현황

지역	사립	공립	계
서울	한영, 대원, 명덕, 대일, 서울, 이화여자		6
부산	부산, 부일, 부산국제		3
대구		대구	1
인천	인천		1
대전		대전	1
광주	2010년 개교 목표 추진중		0
울산		2009년 개교 목표 추진중	0
경기	과천, 안양, 고양, 명지, 용인, 김포	동두천, 성남, 수원	9
강원	2009년 개교 예정		0
충북	중산	청주	2
충남		2008년 개교 예정	0
전북		전북	1
전남		전남	1
경북		경북	1
경남	경남	김해	2
제주		제주	1
계	18	11	29

세 차례 사고 음주 뺑소니 운전자 차량 가로등 들이받고 전복 ‘덜미’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세 차례 낸 뒤 달아나던 중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붙잡혔다.

용접공인 이모(51·광주시 북구 삼각동)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20분께 북구 오치동 혁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8% 상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앞서 가던 정모(52)씨의 아토스 승용차를 추돌했다. 1㎞가량을 도망치던 이씨는 북구 삼각동 삼일교회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 문모(42)씨의 트라제 승용차를 또 들이받았다.

이씨는 자신의 차를 앞질러 기다리고 있던 문씨의 차를 재차 들이받은 후 줄행랑을 쳤다. 하지만 북구 생룡동 우치 골프장 앞 도로에서 가로등에 부딪혀 전복되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15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상태였으며, 면허도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당시 뺑소니 정황 등을 조사한 후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장애인 인신매매 넷 검거

여수경찰은 6일 장애인 3명을 새우잡이 배 선원으로 팔아넘기고 선불금을 가로챈 김모(39)씨 등 4명을 영리유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지체장애인 주모(35)씨 등 3명을 신안 선적 새우잡이 배에 55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당 8만원을 받을 수 있는 목포 H중공업에 소개시켜 주겠다며 주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02-722-1282 www.ikpec.or.kr

“학교급식에 수입 쇠고기 쓰지 않겠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 직영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5곳은 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입 쇠고기를 절대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업체들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단체급식에서 대량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육량 B등급·육질 2등급 이상의 안전한 육류를 제공해 학부모들에게 급식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노반 침하 모른 채 열차 운행 ‘아찔’

목포~광주 KTX 등 5편 대형사고 일어날 뻔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장대비로 호남선 철도 일부 노반(路盤)이 침하됐으나 3시간 여 동안이나 열차가 정상운행돼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철도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께 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상전마을 호남선 하행선(송정역 기점 5.2㎞ 지점) 10m 구간의 노반이 10~20㎝가량 침하됐다.

철도공사 측은 그러나 오후 6시15분 인근에서 교량공사 중이던 S기업 측 신고를 받고서야 직원 50명과 화차 등 5대를 동원, 뒤늦게 긴급 복구공사에 나서 6일 새벽 3시 자갈로 되메우기 공사를 마쳤다. 공사 중 목포행 등 하행선 열차 9편은 상행선로를 이용해 단선운행했다.

이 구간은 광주~목포 간 KTX 등 열차(1편당 평균 승객 50명)가 하루 36번 왕복하는 곳으로 노반이 침하된 후 복구 전까지 오후 5시15분 열차 등 모두 5편의 열차가 통과했다.

철도공사 측은 비가 계속 내리자 선로의 이상 유무를 순찰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침하 현장을 발견하지 못해 확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사고 현장 인근에 신축 중인 지방도 49호선 1공구 다리 공사 현장에서 유입된 물이 노반을 침하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건설교통부·광주시 측과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

지루한 ‘가을 장마’

도로 붕괴·농경지 침수 피해 잇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연 10일 동안 계속된 ‘가을 장마’로 광주·전남 도로 붕괴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기간 중 일조시간(日照時間·구름이나 안개 따위에 가려지지 아니하고 햇볕이 실제로 내리쬐는 시간)은 단 54분에 불과, 가을걷이를 앞둔 농작물 피해도 우려된다.

6일 오전 8시30분께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군도 16호선 중 8m가 붕괴(높이 15m·노폭 1.5m)됐으며,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농어촌도로도 산사태가 나 일부 구간(길이 10m·노폭 2m·높이 6m)이 유실됐다.

비슷한 시간 광주시 서구 금호동 로렌시아 아파트 입구 도로 15m가 침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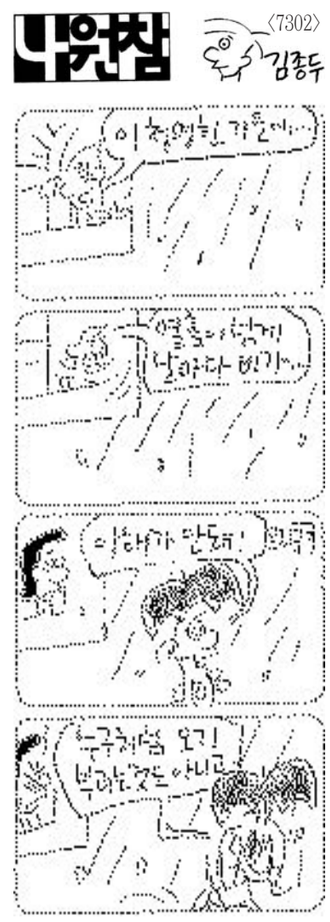
앞서 지난 5일 밤 9시께 광주시 북구 제2순환도로 각화IC 인근 절개지 10㎡가 무너져 밤 12시까지 차량 통행이 큰 지장을 받았다. 또 ▲광주시 광산구 보훈병원~산동교 ▲광산구 평동대교 인근 천변로 ▲장성읍 영천리 국도 1호선 ▲목포시 버스터미널 앞 도로도 침수돼 교통이 일부 통제됐다.

진도군 진도읍 포삼리 일대·고군면 내산리 일대 농경지 15ha가 물에 잠겼고, 신안군 도초면 이곡리 들녘의 벼 5ha가 쓰러졌다.

최근 10일간 쏟아진 비는 ▲광주 392.2㎜(여름 장맛비 277㎜) ▲장흥 337.5㎜ ▲완도 316.1㎜ ▲목포 296.6㎜등으로, 7일에도 10~50㎜의 비가 예상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김을배 지도관은 “비가 많고 대기 중 습도가 높아 조생종 벼(도내 농가 5% 재배)에서 수발아(穗發芽·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낟알이 싹이 트는 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수확이 한 달여 늦은 중만생종 벼(〃 95% 재배)의 경우 다음주까지 비가 계속된다면 제대로 여물지 못해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다음은 건축 신명재료 KCC
DS건설(주) KCC창호, 현수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주)봄드나리 KCC실크론, 에인트로 대리점
실리콘·방수재·접착제·테이프

잘못 입금된 현금 49만원 ‘슬쩍’

쌍나팔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이용자가 실수로 놓고 빼내가지 못한 돈을 몰래 가져간 40대 주부가 뒤늦게 경찰에 덜미.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6월5일 오후 6시께 광주은행 일곡지점 현금 입출금기에서 김모(여·28)씨의 돈 49만원을 훔친 이모(여·49)씨를 6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김씨는 이날 현금 입출금기로 50만원을 입금하던 중 1만원권 지폐 한 장이 불량으로 반환되자, 나머지 돈은 입금된 것으로 착각하고 은행 출입문을 나갔는데 이 사실을 안 이씨가 곧바로 취소 버튼을 누른 뒤 돈을 가져간 것.

○…경찰은 뒤늦게 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안 김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은행 CCTV에 찍힌 이씨의 얼굴과 신상을 파악해 검거.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